

# '93 산업보건 정책방향

노동부 산업보건과

## ◆ '92 사업의 평가

아직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열악하고 근로자 건강에 대한 배려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직업병유소건자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산업보건제도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며 전문기관, 인력도 빈곤한 형편이다.

정부는 '9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산업현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였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보건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을 독려하고 선임이 어려운 곳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단행하여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였고, 정도관리를 시행하여 건강진단과 환경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힘썼다. 또한 직업병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산업의학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지급(10명), 직업병예방 연구용역사업(17건), 건강진단기관, 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국고보조사업(11기관 20식)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직업병의 예방은 물론 근로

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보완에 힘쓰는 한편,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관련부문의 인력 및 기관의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 ◆ '93 주요사업

**사업장 자율보건관리의 활성화** 기업의 보건관리체제를 확립시키고 보건관리 활성화를 유도하여 자체 보건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선임실태를 전산입력하여 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건관리자들의 경험교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별 보건관리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우수 보건관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를 위탁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보건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 건강진단철저 및 사후관리 강화** 기업현장의 질병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로 질병의 악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빠짐

## ◆ '93 주요사업

### 사업장 자율보건관리의 활성화 근로자 건강진단철저 및 사후관리 강화 영세사업장 종사근로자 건강관리지원 근로자 건강상담실 운영 활성화

없이 시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CS<sub>2</sub>, Pb, Cd, Cr 취급사업장중 1, 2차 검사항목을 통합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를 확정하고,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제출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를 전산입력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질병유소근로자에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있어서 특수검진은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작업환경측정 능력이 있는 기관을 특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92년 시행하기 시작한 정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주, 근로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영세사업장 종사근로자 건강관리지원** 산재취약, 직업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세업체는 대부분 재정능력이 취약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근로자 건강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장 유해요소의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건강관리방안 지도, 건강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특히 영세사업장 종사근로자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 건강상담실 운영활성화** 근로자가 직업병에 이환되었거나, 여타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 건강진단기관 등을 찾아 손쉽게 건강상담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를 위하여 사업장 게시판, 홍보용 팜플렛 배포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영세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 의사, 간호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담결과 질병의심자는 즉시 산재요양 및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문연구기관 및 인력육성** 직업병예방·진단·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이 긴요하므로 산업의학전문의 제도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의학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지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산업위생·산업간호 분야의 전문인력도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직업병예방과 산업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적·실용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도 '92년도에 이어 계속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자유공모과제와 별도로 국책연구과제를 제시하여 연구결과와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련업계에 널리 전파할 예정이다.

직업병예방을 위한 연구 또는 사업기관의 시설, 장비보강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바, 특히 국립대 부속병원 또는 산업의학연구소 설치기관을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대상기관의 자조노력을 전제로 시설, 장비 구입비용의 1/3을 무상 지원한다.

**직업병 취약사업장 관리**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직업병 유소근로자

◆ '93 주요사업  
**전문연구기관 및 인력육성**  
**직업병 취약사업장 관리**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직업병예방 국제협력사업 지속추진**

의 재발을 방지해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관내의 취약사업장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주요 취약업체를 망라하여 관서장 책임하에 중점관리하게 하므로써 직업병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의 기술지도를 받게 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진단,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병 발생우려가 높은 유해부서에 종사하는 간이검진을 실시하고 필요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특히 작년 1월 개원한 산업보건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계획이다.

**진폐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분진작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진폐근로자 생활보호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시기에 검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진폐심사의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순회 지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진폐건강진단항목 및 검사방법의 개선, 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기준 및 작업전환조치기준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진폐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광산에 대한 작업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광산 작업 반장 및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폐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진폐근로자를 전산관리

하여 정밀진단 판정업무를 내실화하고 각종 진폐급여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병예방 국제협력사업 지속추진** 작년 4월 19일 한일 양국간에 합의서가 체결되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직업병예방 한일 기술협력사업을 가속화하여 선진기술제도 및 기술의 전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도입될 각종 건강진단, 환경측정장비의 작동방법 등을 익히고 보호구검정, 직업성질병, 중소기업의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우리나라 연수생을 파견하고(7명), 일본측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9명).

◆ **결론 : 노사의 인식제고 및 전문가의 협조건요**

직업병의 예방 등 산업보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관계법령의 정비보완 및 각종지원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업현장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의 관심이 보다 중요하다. 사업주는 “건강한 근로자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사고방식을, 근로자들은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돌본다는 자세를 갖고 자기와 동료의 건강을 돌보는데 힘써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산업보건 전문가 집단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 한다면 ‘책적인 직장, 건강한 근로자’라는 산업보건의 소임은 완수되리라 믿는다.